

**전열제품, 어린이용품
 위해사례 많아
 주의요구**

◎ 대상기간 : '11.09.19~10.18

■ 일교차가 큰 가을이 되면서 전기매트와 전열기 등 전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

전기매트 등, 전열제품은 제품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전기제품 관련 화재 총 9건 중에 5건이 이와 관련된 사고였으며, 그 중 한 건은 두 명이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. 전열제품은 화상과 화재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제품 구입 및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.

■ 어린이용품(학용품, 장난감, 유아보호용품 등)에서 유해물질 검출

유해물질은 주의력 결핍장애,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제품들은 철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, 소비자들은 안전인증(KC마크)을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또한,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제대로 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지 안전성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◎ 10월 제품안전관련 사고 모니터링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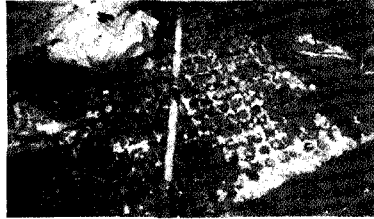
사고 건수 (개)	공산품	전기용품	월간 소계	누계
	9	12	21	21



◎ 주요 보도 내용

■ 부산 다세대주택에서 화재 발생

- 보도일자 : 2011.10. 04(화)
- 보도매체 : YTN
- 품 목 : 전기장판
- 사고유형 : 과열, 화재
- 지 역 : 부산 전포동
- 주요내용 : 10월 4일 1시 50분쯤 부산시 전포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 났다.



이 불로 46살 박 모 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고, 딸 15살 임 모 양은 연기를 들이마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. 또 내부 10㎡가 타,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양 방에 있던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.

■ 초등생 고무판화서 중금속·환경 호르몬 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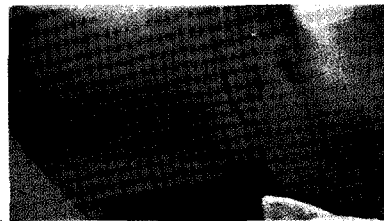
- 보도일자 : 2011. 09. 19(월)
- 보도매체 : KBS 뉴스
- 품 목 : 고무판화
- 사고유형 : 유해물질
- 주요내용 :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판화용 고무판에



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등이 검출되었다. 고무판은 바닥재로 분류돼 안전기준조차 없는 데 이처럼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학용품이 수도룩하다. 한 초등학교생은 "너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멍하고, 기침도 나고 그랬어요." 라고 말하였다.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해서 만든다는 시중의 고무판 4개를 조사한 결과, 심장 정지 유발 물질로 알려진 바륨은 모든 고무판에서 검출됐고,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카드뮴도 함유돼 있었다.

■ 유아용 장난감서 납 검출

- 보도일자 : 2011.09.26(월)
- 보도매체 : MBC 뉴스
- 품 목 : 완 구
- 사고유형 : 유해물질
- 주요내용 : 아기들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.



한 국내산 고무공은 납성분검출기로 검사시, 기준치의 다섯 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, 다른 업체가 만든 필통은 기준치의 세 배가 넘었다. 한 시민단체가 완구와 문구류 4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이 검출되었다.